



외로움과 돈에 대한 왜곡된 믿음

- 행복추구 수단으로써의 돈을 중심으로

Lonely people choose money over relationships in pursuit of happiness

저자 (Authors)	김가영, 임남연, 서은국 KaYoung Kim, Nangyeon Lim, Eunkook M. Suh
출처 (Source)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1) , 2016.2, 1-21 (21 page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30(1) , 2016.2, 1-21 (21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심리학회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14023
APA Style	김가영, 임남연, 서은국 (2016). 외로움과 돈에 대한 왜곡된 믿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1), 1-21.
이용정보 (Accessed)	연세대학교 165.132.14.104 2016/04/06 19:4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외로움과 돈에 대한 왜곡된 믿음 - 행복추구 수단으로써의 돈을 중심으로*

김 가 영

연세대학교

임 낭 연

경일대학교

서 은 국[†]

연세대학교

외로운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 한 명과 1억 원의 돈 중 무엇을 선택할까? 결핍된 사회적 욕구는 외로움으로 이어지며, 타인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외로움이 경감될 수 있다. 따라서 외로울수록 물질주의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고 선호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외로운 사람들은 돈을 행복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보다는 1억 원의 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 1, 2). 하지만 외로운 사람들의 믿음과는 달리 실제로는 돈이 사회적 관계보다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 3).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외로운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보다 돈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외로움의 원인에 대하여 현재까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물질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한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외로움, 물질주의, 행복, 일반적 믿음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230).

[†] 교신저자: 서은국,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Tel: 02-2123-2446, E-mail: esuh@yonsei.ac.kr

물질주의는 정신적인 것보다 재화와 같은 물질적인 가치를 우위에 두고, 이를 추구하고 획득하려는 전반적인 태도나 신념을 나타낸다(Richins & Dawson, 1992). 경제적 교환의 기본 단위로써 돈이 제공하는 편의성과 혜택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삶의 전반적 영역에서 주관적 안녕감을 저해하거나 사회 구성원간 낮은 신뢰를 야기하는 등 개인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Ahuvia & Wong, 2002; Belk, 1985; Bredemeier & Toby, 1960; Rahn & Transue, 1998; Wright & Larsen, 1993). 돈에 부여하는 가치가 클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고(Burroughs & Rindfleisch, 2002) 사회적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Kasser & Ryan, 1993). 또한 타인과의 협동보다는 개인행동을 선호하며,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도 덜 하는 경향을 보인다(Vohs, Mead, & Goode, 2006; Zhou & Gao, 2008; Zhou, Vohs, & Baumeister, 2009).

하지만 돈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부는 여러 측면에서 삶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필요가 충족되는 수준까지 돈은 주관적 안녕감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변인 중 하나이다(Aknin, Norton, & Dunn, 2009; Diener & Oishi, 2000; Diener, Sandvik, Seidlitz, & Diener, 1993; Inglehart, Foa, Peterson, & Welzel, 2008; Veenhoven, 1995). 여러 연구에서 경제적 안정과 신체 및 정신 건강은 정적 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예, Langner & Michael, 1963; Mayer, 1997; Smith, Brooks-Gunn, & Jackson, 1995; Wheaton, 1994; Wilkinson, 1996),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을 경험하는 횟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Wilson et al., 1995). 이처럼 돈은 기본적 생활수준이나 경제적 안정성 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무조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감소시킨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Diener, Ng, Harter, & Arora, 2010; Stevenson & Wolfers, 2008; Veenhoven, 2012).

오히려 돈 자체보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이 개인의 행복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돈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주의적 신념이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들에 의해 보고되었다(Diener & Biswas-Diener, 2002; Diener & Oishi, 2000; Karabati & Cemalcilar 2010; Ryan & Dzuirawiec 2000). 즉, 돈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며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물질주의적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행복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Brickman, Coates, & Janoff-Bulman, 1978; Cohen & Cohen, 1996; Watson, 2003).

이와 같은 물질주의는 오늘날 특정 문화권을 넘어서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Ger & Belk, 1996), 한국에서도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물질만능주의적 태도가 사회적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Diener, Suh, Kim-Prieto, Biswas-Diener, & Tay, 2010). 최근에는 이러한 물질주의적 믿음은 개인의 행복 수준뿐만 아니라 외로움에도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ieters, 2013).

물질주의와 외로움

외로움은 개인이 필요로 하는 관계에 대한 욕구만큼 사회적 환경이 뒷받침하지 못할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Cacioppo & Patrick, 2008; Russell, Peplau, & Cutrona, 1980; Weiss, 1973). 따라서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 회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외로움의 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사회적 관계를 우위에 둘 것이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Pieters (2013)가 6년 간 진행한 종단 연구에 의하면 오히려 물질주의와 외로움은 쌍방향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외로움이 물질주의적 태도를 가지게 하는 동시에, 물질주의가 외로움을 증대

시키는 주요한 변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외로움과 물질주의 수준이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가 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Pieters(2013)는 또한 물질주의의 각 하위 요인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그 영향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물질주의는 소유중심(centrality), 성공추구(success), 행복추구(happiness)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박해정 & 전경숙, 2004; Richins et al., 1992). 첫 번째로 소유중심적 물질주의(acquisition centrality)는 물질의 소유와 획득을 삶의 목적과 기쁨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아님에도 구매나 소비 자체를 위해 돈을 사용하는 데에서 희열을 느끼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중요시 한다. 따라서 소유중심적 물질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명품을 선호하거나 소비를 위한 소비를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두 번째로 성공추구(possesion-defined success)는 물질적 소유, 구체적으로 좋은 물건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를 성공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 성공추구적 물질주의 수준이 높은 개인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판단하거나, 타인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이용한다. 또한, 이들은 값비싼 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행복추구(acquisition as the pursuit of happiness)는 물질적 소유가 자신의 행복 수준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를 나타낸다. 타인과의 관계와 같이 정신적인 것보다 물질적 획득을 행복 추구의 주요한 방법으로 여기기 때문에 돈과 같이 물질적 소유가 개인의 행복 척도가 된다. 따라서 행복추구적 물질주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과 더 나은 물건을 가지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Pieters(201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공추구와

행복추구적 물질주의가 외로움을 증대시키는 주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로움 수준이 높을수록 물질적 소유를 자신의 성공 기준으로 삼거나 행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물질주의의 이 두 하위 요인 중에서도 행복추구적 물질주의가 강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보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관계의 양적,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로울수록 사회적 관계를 등한시하고 물질적인 소유를 행복의 수단으로 여기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외로운 사람들의 돈에 대한 믿음

그렇다면 외로운 사람들은 왜 돈을 행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지난 30여 년 간 진행되어온 주관적 안녕감 연구는 “사회적 관계 = 행복”이라는 간단하지만 일관적인 결론을 제시해왔다(Diener & Seligman, 2002).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보다도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보고되었다(예, Diener, Oishi, & Lucas, 2009; Tay & Diener, 2011). 반면 외로움은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부재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상태로, 만성적인 외로움과 낮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은 높은 관련성이 있다(Cacioppo et al., 2000; Myers & Diener, 1995).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 회복이 외로운 사람들의 결핍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행복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Cacioppo, Hawkey, Kalil, Hughes, Waite, Thisted,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등한시하는 물질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데에는 이들이 돈에 대한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내재된 믿음(lay belief)은 어떤 현상이나 개

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신념을 뜻하며, 개인의 경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식에 기반을 둔 논리처럼 체계적이기 보다는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성격이 강하다(Furnham, 1988).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인지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사 결정 및 행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예, Cameron, Alvarez, Ruble, & Fuligni, 2001; Daniel & Carol, 2006; Furnham & Bower, 2001; Hong, Levy, & Chiu, 2001). 예를 들어, 행복의 개념에 대한 믿음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며(Furnham & Cheng, 2000), 행복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행복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 실제로 행복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Dweck, 2006) 행복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고 믿을수록 낮은 수준의 행복감을 보고한다(구자영, 서은국, 2007).

외로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친구 및 가족과의 연락 횟수도 외롭지 않은 개인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고 사회적 관계의 폭 또한 좁다(Bondevik & Skogstad, 1998; Hawkey, Browne, & Cacioppo, 2005; Mullins & Dugan, 1990). 그러나 적은 사회적 관계조차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Hawkey, Hughes, Waite, Masi, Thisted, & Cacioppo, 2008; Routasalo, Savikko, Tilvis, Strandberg, & Pitkälä, 2006) 타인과의 충돌 및 갈등을 겪는 횟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Jones, 1992). 뿐만 아니라 외로운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생각하여 관계에 대한 적대감이 높으며(Cacioppo, Hughes, Waite, Hawkey, & Thisted, 2006) 상호작용 상황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Twenge, Baumeister, Tice, & Stucke, 2001).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며(Rosenberg & Kmill, 1992), 외로운 사람들 스스로도 사회적 관계를 불만족스럽게 여긴다(Ernst & Cacioppo, 2000; Demir & Taran, 2001; Hawkey, Preacher, & Cacioppo, 2007).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외로운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로운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이유로 사회적 관계상에서 경험하는 불만족이나 관계 자체의 부재를 주요한 변인으로 꼽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Cacioppo et al., 2000; Cheng & Furnham, 2002; Lee & Ishii-Kuntz, 1987). 이처럼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장기적으로 문제를 겪게 될수록 관계 만족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부정적 정서 경험의 횟수나 정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ook, 1990). 이와 같이 외로운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에 지속적인 문제를 겪는다.

따라서 외로운 사람들이 돈을 행복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돈이 사회적 관계 이상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박진영, 최혜원, 서은국, 2012). 또한, 돈을 행복의 수단으로 여기는 행복추구적 물질주의가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만족도와는 부적 상관을 가지는 반면(Roberts & Clement, 2007) 외로움과는 정적 상관을 가진다는 점(Pieters, 2013)을 고려한다면, 돈이 자신의 행복 수준을 높여줄 것으로 생각할수록 사회적 관계를 등한시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외로움의 원인 -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외로운 사람들이 왜 만성적인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행한 상태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로 진행되어 왔다. 외로움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외로운 사람들의 정서, 인지, 행동적 측면의 문제뿐만 아니라(DeWall, Twenge, Gitter, & Baumeister, 2009; Downey & Feldman, 1996; Murray, Holmes, MacDonald, & Ellsworth, 1998) 대의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기술의 부족(DiTommaso, Brannen-McNulty,

Ross, & Burgess, 2003; Jones, Hobbs, & Hockenbury, 1982), 최근에는 유전적인 수준까지 진행되었다(Boomsma, Cacioppo, Cacioppo, Slagboom, & Posthuma, 2006; Boomsma, Cacioppo, Muthén, Asparouhov, & Clark, 2007; Cacioppo, Cacioppo, & Boomsma, 2014).

하지만 외로움의 원인을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다. 외로움과 물질주의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연구도 최근에서야 진행되었으며(Pieters, 2013), 드물게 이루어진 연구도 외로운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물질주의의 매개에서 찾는 정도이다(Ang, Mansor, & Tan, 2014). 물질주의가 일부 국가의 문제를 넘어 전세계적인 사회적 논쟁점이 되고 있으며(Ger et al., 1996; Richins & Rudmin, 1994)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외로움에도 영향을 끼치는 주요 변인이라는 점에서 외로움과 물질주의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외로운 사람들이 행복의 수단으로 물질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로 이들이 행복 추구를 목적으로 사회적 관계보다 돈을 선호하고, 이러한 선택이 그들의 행복 수준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외로운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 이상으로 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외로울수록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질 것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보다는 돈을 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인구학적 변인 및 경제적 수준을 통제해도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질 것이다(가설 1). 그러나 외로운 사람들의 예측과는 달리, 사회적 관계에서 느끼는 행복과 돈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 수준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이다(가설 2).

따라서 외로운 사람들은 사람보다는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돈이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능성에 주목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 1

연구 1의 목적은 종단 자료를 사용하여 실제로 외로운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보다 물질주의적 가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외로움의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관계를 다른 가치들보다 우선시 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관계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소속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Smart Richman & Leary, 2009; Twenge et al., 2001). 뿐만 아니라 외로움이 물질주의적 가치 선호에 영향을 주고 물질주의도 장기적으로 외로움의 수준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Pieters, 2013) 외로운 사람들이 물질적 가치 대신 좋은 사회적 관계를 선택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 따라서 연구 1에서는 외로운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와 물질적 가치, 구체적으로 진정한 친구 한 명과 1억 원의 돈 중 어떤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지 확인해보았다.

방법

연구대상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 과제의 일환으로 실시된 종단 프로젝트 ‘세계 속 한국인의 행복과 번영’의 1, 2차 설문 자료를 이용하였다. 1차 자료 수집은 2011년, 2차 자료 수집은 2012년에 실시했으며 연세대학교와 중앙대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1차 설문에는 총 298명이 참여하였고(남자 152명, 여자 146명), 2차에는 1차 설문 응답자 중 236명이 참여하였다.

설문

1차 설문에서 다른 여러 설문 문항들과 함께 개인의 기질적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 UCLA 외로움 척도 단축형(Hughes, Waite, Hawkley, & Cacioppo, 2004) 3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척도는 대규모 설문 연구에 적합하도록 적은 문항으로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며, 전반적 외로움 측정에 있어 높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ughes et al., 2004). 또한 함께 측정한 가구 월평균 소득, 한 달 평균 사용하는 용돈은 경제적 수준의 통제 목적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2차 설문에서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인 “당신은 노년기에 진정한 친구 한 명과 1억 원의 돈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가 포함되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참가자들에게 7점 척도(1 = 진정한 친구 한 명, 7 = 1억 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결과 및 논의

먼저 1차시기에 측정한 외로움의 3문항 내적 합치도는 .721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그렇다면 외로운 사람일수록 사회적 관계보다는 오히려 이들을 장기적으로 더욱 외롭게 하는 물질적 가치를 선택할까? 분석 결과, 1차 시기에서 기질적 외로움의 수준이 높았던 참가자일수록 2차시기에 진정한 친구 한 명보다 1억 원의 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r = .13, p < .05$. 경제적 수준이 외로움과 물질적 가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1차 설문에서 측정한 가구 월평균 소득과 한 달 평균 사용하는 돈을 통제해도 외로움과 물질적 가치 선택의 관계는 여전히 유의미했다, $r = .13, p < .05$. 즉,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외롭다고 보고할수록 1년 뒤 사회적 관계보다 물질적 가치를 우위에 두었다. 사회적 관계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가 물질주의

라는 점에서, 이 결과는 외로울수록 물질주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Pieters, 2013)와 같은 맥락에 있다. 또한, 연구 1의 중단 분석에서 외로움은 물질주의보다 선행하는 사건이므로 외로울수록 물질적 가치 선택을 한다는 방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로움은 개인이 원하는 사회적 욕구가 결핍되었을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같은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Baumeister & Leary, 1995; DeWall & Richman, 2011). 실제로 결핍된 사회적 욕구는 친사회적인 태도와 같이 타인의 호의를 얻거나 관계 지향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DeWall & Pond Jr, 2011; Lakin, Chartrand, & Arkin, 2008; Maner, DeWall, Baumeister, & Schaller, 2007). 하지만 기존 연구와는 반대로 연구 1은 외로움 수준이 높을수록 좋은 사회적 관계보다 물질적 재화를 선호한다는 의외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개인의 경제적 수준이나 소비 금액과 관계없이 유의미했다는 점에서, 금전적 결핍이 아닌 사회적 결핍이 진정한 친구보다 1억 원의 돈을 선택하도록 한 요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외로운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 이상으로 물질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선택을 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해서는 연구 1의 결과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개인의 경제적 수준이 이러한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보다 물질적 가치를 통해 보장되는 결과가 더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 2에서는 외로운 사람들이 물질적 가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외로울수록 진정한 친구보다 돈

을 선택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외로움과 물질주의가 특정 문화권에 국한되지 않는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타 문화권에서의 재검증 및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Richins 등(1992)은 물질주의가 소유 중심, 행복추구, 성공추구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고, 행복추구와 성공추구적 물질주의가 외로움과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ieters, 2013). 이는 외로운 사람들이 물질적 소유를 자신의 성공 기준으로 삼거나 주관적 행복감을 증대시키는 수단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생각이 장기적으로 이들을 더욱 외롭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가능성은 외로운 사람일수록 이후에 좋은 대인관계를 택하기보다 물질주의적 선택을 한다는 연구 1의 종단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따라서 외로운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보다 돈을 택하는 것은 물질적 가치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타인과의 관계가 전반적인 행복 수준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외로운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보다는 1억 원의 돈을 선택한 데에는 사회적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보다 물질적 가치에 기대하는 행복이 더 클 수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외로운 사람들은 타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계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Ernst et al., 2000; Wittenberg & Reis, 1986).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할 때, 사회적 관계보다 물질적인 재화를 선택하려는 기저에는 돈을 행복의 수단이라 여기는 가치관의 매개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 2에서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외로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구체적인 양상을 알아보았다. 또한, 인구학적 변인 및 경제적 수준을 통제해도 물질적 가치가 친구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외로운 사람들의 성향을 매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방 법

연구대상

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16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남자 91명, 여자 125명). 참가자들의 인종 집단은 유럽계 미국인 174명(80.6%), 아프리카계 미국인 19명(8.8%), 아시아계 미국인 12명(5.6%), 라틴계 미국인 5명(2.3%)과 그 외 6명(2.8%)으로 집계되었다. 참가자의 평균 나이는 41.13세였다($SD = 13.54$).

설문

미국의 Amazon Mechanical Turk(이하 Mturk) 사이트에서 'Money and traits'라는 제목으로 돈에 관련된 일반적인 생각과 태도를 알아보는 설문이라고 소개하며 참여시 \$0.25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Mturk를 사용한 설문의 응답은 전통적 방식의 설문이나 실험과 비슷한 높은 신뢰도를 가지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좀 더 폭넓은 계층의 참가자를 모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을 가진다(Buhrmester, Kwang, & Gosling, 2011; Holden, Dennie, & Hicks, 2013). 참가자들의 기질적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 UCLA 외로움 척도(Russell, 1996) 20문항과 소유중심, 성공추구, 행복추구 각 6문항으로 이루어진 물질주의 척도 18문항(Materialistic Value Scale; Richins et al., 1992)을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의 경제적 수준 측정을 위해 가정월평균소득, 한 달 간 사용하는 돈의 액수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 수준 또한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예, Oishi, Kesebir, & Diener, 2011) 자신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제적 수준도 보고하도록 하였다(매우 낮음 = 1, 매우 높음 = 10).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친구 한 명과 \$100,000(약 1억 2천만 원)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에 대한 질문 또한 7점 척도(1 = 진정한 친구 한 명, 7 = \$100,000)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결 과

먼저, 외로움 척도 20문항의 내적 합치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는 .943이었다. 다음으로, 외로움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물질주의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외로움과 전반적 물질주의 및 물질주의의 세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표 1 참고). 그 결과 외로움과 전반적인 물질주의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이 나타났다, $r = .31, p < .001$. 특히, 물질주의 하위요인 중 소유중심($r = .17, p < .05$)과 성공추구($r = .20, p < .01$)에 비해 외로움과 행복추구적 물질주의($r = .44, p < .001$)가 외로움과 가장 강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행복추구적 물질주의와 외로움의 상관관계는 성별, 나이 등의 인구학적 변인과 다양한 경제적 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했다, $r = .40, p < .001$. 즉, 외로움의 정도가 물질주의적 성향과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특히 물질적 가치가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사회적 관계보다 돈을 선택하고자 하는 성향이 외로움과 상관을 가지는지, 그리고 이 관계가 물질주의적 태도에 의해 매개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른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외로움과 행복추구적 물질주의 간 가장 강한 관계

표 1. 외로움과 물질주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외로움	
	<i>r</i>	<i>partial r</i>
전반적 물질주의	.31***	.30***
소유중심	.17*	.18*
행복추구	.44***	.40***
성공추구	.20**	.20**

주. * $p < .05$, ** $p < .01$, *** $p < .001$

주. *partial r*은 성별, 나이, 경제적 수준을 통제한 편상관계수

가 있다는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물질적 가치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신념에 초점 두고 분석했다.

1단계에서 외로움이 행복추구적 물질주의를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예측변인을 외로움으로, 행복추구적 물질주의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B = 1.00, t = 7.11, p < .001$. 2단계 회귀분석에서도 외로움수록 진정한 친구보다 \$100,000을 선택하는 경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B = 1.11, t = 4.31, p < .001$. 이 결과는 연구 1에서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보고할수록 진정한 친구보다 돈을 택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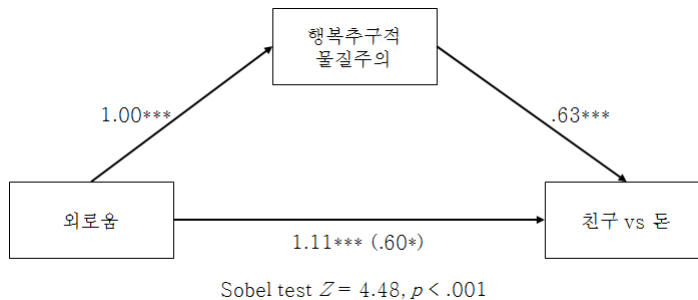


그림 1. 외로움과 친구 또는 돈 선택 관계에 대한 행복추구적 물질주의의 매개 효과

주. 괄호 안은 행복추구적 물질주의가 외로움과 친구-돈 선택에 대한 효과를 매개할 때의 B값

주. * $p < .05$, *** $p < .001$

행복추구적 물질주의를 통제하여도 여전히 외로움이 친구보다는 돈을 선택하도록 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B = .60, t = 2.17, p = .03$.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외로움이 사회적 관계 또는 물질적 가치를 선택하도록 하는데 행복추구적 물질주의가 유의미한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했다, $Z = 4.48, p < .001$. 성공추구적 물질주의의 매개 효과는 유의하나 행복추구적 물질주의에 비해 효과가 작았으며($Z = 2.35, p < .05$) 소유중심적 물질주의의 매개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Z = 1.69, ns$.

논 의

연구 2를 통하여 인구학적 변인 및 경제적인 수준과 관계없이 외로움과 물질주의 간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질주의의 하위 요인 중에서도 물질적인 소유가 행복의 기준이 된다는 믿음인 행복추구적 물질주의와 외로움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물질주의 수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이,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뿐 아니라 경제적 수준도 다양한 방면으로 고려하여, 외로움과 물질주의의 관계에 있어 사회경제적 상황 변인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미국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 2를 통해 외로움과 물질주의 간의 상관이 범문화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재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월평균소득이나 한 달 동안 지출하는 금액과 같은 객관적인 변인뿐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가 포함된 지각된 경제 수준과 같은 주관적인 변인도 통제하여도 물질적 가치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행복추구적 물질주의와 외로움은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외로움의 수준과 물질적 가치 선택에 있어 행복추구적 물질주의가 유의미하게 부분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외로운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보다 돈을 추구하는 이유는 물질적 소유가 개인의 행복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여기기 때문임을 검증하였다. 이는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가 개인의 행복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임에도(Diener et al., 2002) 외로운 사람들은 사회적 유대감보다 돈이 자신의 행복감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다음 연구는 외로운 사람들이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적 결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과연 외로운 사람들의 믿음처럼 실제로 좋은 친구보다 돈이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사회적 관계가 궁극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에도 왜곡된 믿음 때문에 돈을 추구하는 것일까? 연구 3에서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돈이 행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검증해 보고자 한다.

연구 3

연구 2에서 외로운 사람들은 타인과의 유대감보다 물질적 가치가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수단이라 믿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보다는 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실제로도 그들의 믿음대로 돈에서 얻는 행복이 사회적 관계에서 느끼는 행복보다 클까? 사회 안정, 경제 양극화 정도와 같은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 또한 행복에 일부 영향을 주지만(Gerdtham & Johannesson, 2001; Oishi et al., 2011)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행복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인인 것은 확실하다(Diener et al., 2002). 따라서 외로운 사람들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돈 = 행복’이라는 믿음으로 인해 장기적인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 3은 외로운 사람들의 믿음과 같이 실제로 친구보다는 돈이 이들에게

더 큰 행복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방 법

연구대상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 수업을 수강하는 학부생 106명이 크레딧 수여 조건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한국어 이해가 어려웠던 외국인 참가자 1명을 제외한 총 105명(남자 66명, 여자 39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21.90세($SD = 1.92$)였다.

실험 절차

외로움 수준(Russell, 1996)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설문 후 참가자들은 돈-경험, 돈-예측, 친구-경험, 친구-예측 네 가지 조건 중 하나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각 조건에 약 25명씩 포함되었으며 실험이 마무리된 뒤 실험의 본 목적 및 할당된 조건을 공지하였다. 경험 조건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실제로 겪었던 일을 떠올리도록 했고, 예측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특정 상황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 상황에서의 경험을 상상하도록 하였다. 돈 조건에서는 길을 가다 우연히 돈을 주운 상황을 떠올리도록 했으며, 친구 조건에서는 우연히 친구를 마주친 상황을 떠올리도록 했다. 모든 조건의 참가자들에게 각 상황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경험 조건) 또는 얼마나 행복할 것 같은지(예측 조건) 평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돈-경험 조건 참가자들은 혼자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돈을 주운 경험을 떠올리고 그 당시 얼마나 행복했는지 7점 척도(1 =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7 = 매우 행복했다)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실제 주운 금액도 적도록 했다. 돈-예측 조건 참가자들은 혼자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돈을 주운 상황을 가정한 뒤, 얼마나 행복할 것 같은지 7점 척도(1 =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7 = 매우 행복할 것 같다)로 예상하도록 했다. 경험 조건과 마찬가지로 얼마를 주웠다고 가정했는지 금액을 적도록 하였다. 친구-경험 조건에서의 참가자들은 혼자 길을 가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났던 경험을 떠올리고 그 당시 얼마나 행복했는지 위 조건과 동일하게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대신, 실제로 얼마나 친한 친구를 떠올렸는지 7점 척도(1 = 전혀 친하지 않은 친구, 7 = 매우 친한 친구)로 표기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친구-예측 조건에서는 혼자 길을 가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난 상황을 가정하고, 얼마나 행복할 것 같은지 예상하여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얼마나 친한 친구를 떠올렸는지도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결 과

먼저, 외로움 척도(Russell, 1996)의 문항 내적 합치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의 알파는 .898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돈을 주웠거나 친구를 만났을 때 경험하는 긍정 정서에 대한 믿음과 실제 경험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예측 조건과 경험 조건을 나누어서 각각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예측 조건에서 돈을 주운 상황과 친구를 만난 상황을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행복 수준이 외로움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심플 슬롭 분석(simple slop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속 변인인 외로움은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분석 방법에 따라 평균을 기준으로 중심화(centering)한 값을 사용하였다. 평균에서 1 표준편차 높은 값은(+1SD) 외로운 집단으로, 평균에서 1 표준편차 낮은 값은(-1SD) 외롭지 않은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 외로움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46) = 5.52, p < .05$. 즉, 외로울

수록 예측한 행복 수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로운 사람들의 전반적인 낮은 행복 수준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Cacioppo et al., 2008; VanderWeele, Hawley, & Cacioppo, 2012). 또한, 돈-친구 조건의 주효과도 모두 유의했다, $F(1, 46) = 12.66, p < .05$. 외로움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참가자가 친구를 만날 때보다 돈을 주을 때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외로운 사람들은 친구를 만났을 때보다 돈을 주었을 때 더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할까? 예상대로 외로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친구를 만났을 때보다 돈을 주었을 때 더 행복할 것이라 예측했다, $F(1, 45) = 11.61, p < .05$. 반면, 외롭지 않은 집단에서는 예상하는 행복 수준이 돈-친구 조건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 $F(1, 45) = 2.89, ns$.

다음으로 경험 조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예측 조건에서와 같이 경험 조건에서도 외로운 사람들은 실제로 친구를 만났을 때보다 돈을 주었을 때보다 더 행복했을까? 외로운 사람들이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외로운 참가자나, $F(1, 49) = 1.75, ns$, 외롭지 않은 참가자, $F(1, 49) = .56, ns$, 모두에게서 친구-돈 조건에 따른 행복 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2 참고). 즉, 외로움의 수준과 상관없이 돈을 주었을 때 경험한 행복과 친구를 만났을 때 경험한 행복의 수준이 유사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외로울

수록 우연히 돈을 줌이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사건에서 경험한 행복 수준에는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로운 사람들은 친구보다 돈이 그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외로움의 수준에 따라서 돈을 주었을 때 예측한 행복과 경험한 행복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심플 슬롭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로움의 주효과와, $F(1, 45) = .35, ns$, 예측-경험 조건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F(1, 45) = .84, ns$. 반면, 친구를 만났을 때 외로움의 수준에 따라 예측한 행복과 경험한 행복 사이에서 유의미한 주효과를 발견하였다, $F(1, 50) = 3.95, p = .05$. 이는 외로움의 수준이 높을수록 실제로 친구를 마주쳤을 때 경험한 행복보다 예상했던 행복이 더 낮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각 조건에서 떠올린 돈의 액수 혹은 친구와의 친밀함 정도의 차이에 따라 나타났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외로움의 수준이 높을수록 예측 조건에서 덜 친한 친구를 만났던 상황을 가정했거나 더 적은 금액의 돈을 주운 상황을 가정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먼저 예측-경험 조건에서 떠올린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 t 검정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예측 조건에서는 13,208.33원을($SD = 14,580.30$), 경험 조건에서는 5,737.50원을($SD = 1,141.46$) 떠올려, 실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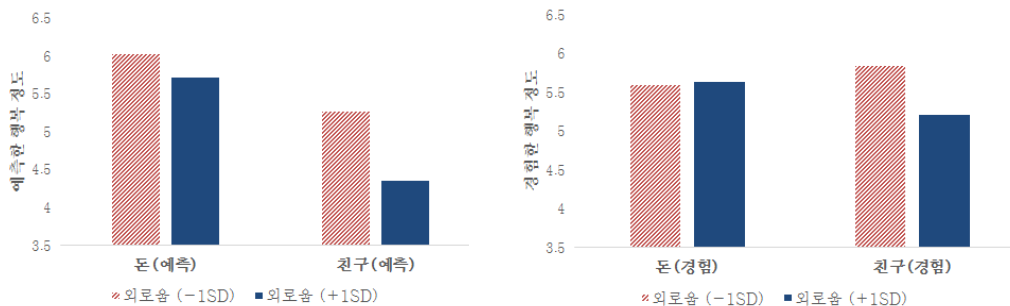


그림 2. 돈을 주었을 때 또는 친구를 마주쳤을 때 예측하는 행복(원)과 실제 경험한 행복 정도(오)

돈을 주운 경험보다 돈을 주었다고 가정했을 때 더 많은 액수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t(46) = -2.34, p < .05$. 두 번째로 예측-경험 조건 간에 떠올린 친구와의 친밀함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t -검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예측 조건과($M = 5.07, SD = 1.46$) 경험 조건($M = 4.92, SD = 1.61$)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t(52) = .36, ns$. 즉, 예측 조건과 경험 조건 모두 비슷한 정도의 친한 친구를 떠올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험 조건 참가자들의 외로움 수준과 회상한 사건 속의 금액(돈 조건) 또는 친구와의 친밀함(친구 조건)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추가적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금액과 친구와의 친밀함 모두 외로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았다($r_{돈} = .11, ns; r_{친구} = -.22, ns$). 다음으로 예측 조건 참가자들의 외로움 수준과 가정된 상황 속의 주운 돈 액수(돈 조건) 또는 친구와의 친밀함(친구 조건)의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예측 조건 참가자들은 외로움 수준과 떠올린 금액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r = -.09, ns$). 단, 친구 예측 조건 참가자들의 외로움과 떠올린 친구의 친밀함 간에 경계 수준의 부적 경향성이 발견되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r = -.38, p = .06$). 따라서 연구 3의 결과가 외로움 수준에 따라 떠올린 친구와의 관계나 돈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

정리하자면, 돈을 주운 경험보다 돈을 주었다고 가정했을 때 떠올린 돈의 액수는 더 높았으나 돈을 주운 것을 가정할 때 예상되는 행복 수준과 실제로 돈을 주었을 때 느낀 행복 수준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친구를 우연히 마주친 실제 경험과 가정된 상황에서 떠올린 친구의 친밀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에도, 실제로 친구를 마주쳤을 때 느꼈던 행복이 가정된 상황에서 예상한 행복 수준보다 더 컸음을 확인하였다.

논 의

연구 3에서는 돈을 행복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외로운 사람들의 믿음대로 돈이 친구보다 실제로 더 큰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외로운 사람들은 우연히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돈을 주을 때 더 큰 행복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실제 경험에서는 돈을 주었을 때나 친구를 만났을 때 비슷한 수준의 행복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실제로 돈을 주운 상황보다 예측 조건에서 더 큰 액수를 떠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었다고 가정했을 때나 돈을 실제로 주었을 때 느낀 행복 수준에는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친구의 경우는 달랐다. 우연히 친구를 마주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예측한 행복보다 실제로 친구를 마주쳤을 때 느낀 행복은 더 컸으며, 이 결과는 얼마나 친한 친구를 떠올렸는가와 상관없이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설문으로 진행된 연구 1과 2의 결과를 실험적인 방법으로 재검증하였다. 앞 연구들을 통해 돈을 행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외로운 사람들의 물질주의적 믿음이 사회적 관계보다 물질적 가치를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전반적 행복 수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실험을 통하여 외로운 사람들의 믿음과는 달리 돈이 친구와의 만남 이상으로 행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직접 검증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외로운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사회적 관계 이상으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잘못된 예측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예측은 친구가 아닌 돈이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왜곡된 믿음을 가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결국 이들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행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의 발전이

필요하지만 돈이 행복 증진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 때문에 행복 향상을 위한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 논의

사람들은 누구나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다. 태어난 직후부터 죽음을 문턱 앞에 둔 순간까지 사람들은 곁에 누군가를 필요로 하며, 관계의 결핍은 죽음과 직결된다(Baumeister et al., 1995; Dunbar & Shultz, 2007). 외로움은 관계 결핍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 역할을 하여 타인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도록 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외로운 사람들은 잘못된 해결 방식을 택하고 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물질주의적 사고가 팽배하면서 돈에 경제적인 교환 수단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행복까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왜곡된 믿음은 오히려 외로움의 악화, 행복 수준의 저하로 이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 개의 연구를 통해 외로운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사회적 관계 대신 돈을 택하려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연구 1에서는 중단 분석을 통해 외로운 사람들이 이후에 진정한 친구 한 명보다 1억 원의 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개인의 경제적 수준이나 소비 정도를 통제해도 유의미했다. 연구 2에서는 미국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연구를 통해 외로운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대신 돈을 선택하려 하는 현상의 기저에는 돈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특정 문화 또는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문화적인 현상임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3에서는 실험을 통해 외로운 사람들이 가진 행복에 대한 믿음, 즉 돈이 행복의 수단이라는

생각이 왜곡된 것임을 발견하였다. 외로운 사람들은 외롭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돈이 친구보다 더 큰 행복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컸던 반면, 실제로는 돈과 친구로 인한 행복에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외로움의 원인을 물질주의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외로움은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이 사회적 결핍으로 인해 경험하는 고통이다(Eisenberger & Lieberman, 2004; MacDonald & Leary, 2005). 뜨거운 불에 손을 갖다 대면 즉각적인 통증을 느끼고 불에서 손을 떼듯이, 고통은 현재 상황을 개선하도록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외로움도 마찬가지로 관계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는 신호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인 외로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며(Cacioppo et al., 2000; Cacioppo, Fowler, & Christakis, 2009; Peplau & Perlman, 1982), 그 이유에 대한 연구는 인지, 정서, 행동 차원을 넘어 DNA 수준까지 진행되었다(Boomsma, Willemsen, Dolan, Hawkey, & Cacioppo, 2005; Distel et al., 2010; McGuire & Clifford, 2000).

하지만 물질주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외로움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외로움은 사회적 결핍을 나타내는 상태이다.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본 연구의 결과는 외로운 사람들은 오히려 관계를 등한시하고 돈이 친구 이상으로 행복을 증진 시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물질주의를 외로움의 원인 중 하나로 제시함으로써 외로움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돈이 사회적 결핍에 대하여 완충제(buffer) 역할을 해준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돈은 자기 충족감, 자신감, 자기 효용성을 높여 어려운 과제에도 더 오랫동안 매달려있도록 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도록 한다(Vohs, Mead, & Goode, 2006, 2008). 더 나아가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 수반되는 사회적, 육체적 고통 또한 경감시켜주는 역할도 한다(Lelieveld, Moor, Crone, Karremans, & Van Beest, 2012; Zhou et al., 2009). 따라서 경우에 따라 사회적 관계보다 돈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Zhou 등(2009)은 사회적 배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경험에 대해 돈이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연구자들은 해당 실험에서 사회적 배제를 당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돈 또는 돈과 같은 모양의 일반 종이를 접화했다. 그리고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얼음물 속에 손을 넣고 있을 수 있는 시간으로 측정했다. 그 결과 돈 접화 조건의 참가자들이 일반 종이 접화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고통을 더 오래 참았다. 이러한 결과는 돈이 사회적 배제의 부정적 효과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돈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경험에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만성적 외로움의 수준을 경감시키거나 장기적인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허청라, 구제선, 서은국(2014)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수준에 도달하면 사회적 욕구 충족 여부가 행복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임을 검증한 바 있다. 돈이 특정 수준까지는 부정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서 봤을 때 궁극적으로 돈이 사회적 관계를 대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계점 및 후속 연구

본 연구에서는 Richins와 Dawson(1992)이 제시한 물질주의 하위 세 요인만을 가지고 외로운 사람들이 돈에 가진 믿음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 척도가 대부분의 물질주의 연구에서 사용하

는 대표적인 척도이나, 돈에 대한 태도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urnham과 Argyle(1998)은 돈에 대한 태도를 안정(security), 자유(freedom), 권력(power), 사랑(love)의 네 가지 하위 요인으로 분석하였다(Furnham, Wilson, & Telford, 2012). 기본적인 틀은 물질주의의 3요인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돈에 대한 믿음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신념이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2에서 외로움과 친구-돈 선택의 관계에 있어 물질주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연구 3에서는 외로움과 행복 예측의 관계에서 물질주의가 이와 유사한 매개효과를 갖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연구 2의 결과를 통하여 외로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추구적 물질주의가 연구 3에서의 잘못된 예측과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참가자들의 물질주의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로움과 친구 혹은 돈으로 인한 행복의 예측의 관계가 실제로 외로운 사람들의 물질주의 성향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지에 확인하기 위해 추후 연구를 통한 보다 확실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세 연구 모두 기본적으로 설문에 대한 자기보고식 응답을 사용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행동 관찰 또는 지인 보고를 통한 객관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연구 3의 경험 조건에서 참가자들이 이전 경험을 떠올리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실제 경험에 비해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현실 상황에서 돈이나 사회적 관계 중 하나를 선택해야 상황은 드물지만, 친구를 우연히 마주치거나 돈을 줌은 경험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경험을 떠올리는 것 이상으로 직접적인 실험을 통하여 참가자들의 실제적인 행복감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로운 사람들의 보상 체계(reward system)에 대해 다각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보

상은 어떠한 행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자극으로, 1차 보상과 2차 보상으로 나뉜다. 1차 보상은 음식, 사람, 성(性)과 같이 생존에 필요하거나 본능적인 것에 기초한 자극이고, 2차 보상은 돈과 같이 1차 보상에 기반을 둔 자극을 뜻한다 (Delgado, 2007; Sescousse, Caldú, Segura, & Dreher, 2013). 외로운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사람이 아닌 돈을 행복 추구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들의 보상체계가 외롭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1차적 보상에 민감한 반면 외로운 사람들은 2차 보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외로운 사람들의 행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fMRI 연구를 통하여 외로움의 수준에 따라 물질적 가치에 대한 보상 체계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외로운 사람들을 더욱 외롭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과도한 물질주의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타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그 어떠한 것도 채워줄 수 없는 본질적 동기이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사회적 관계가 필요한 외로운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물질적인 돈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안타까운 일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돈이 행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왜곡된 믿음을 넘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외로움을 경감하고 실질인 행복 증진을 위한 가장 기본 단위가 된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구자영, 서은국 (2007). 행복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믿음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 1-19.

박진영, 최혜원, 서은국 (2012). 물질주의와 인간 관계 경시의 심리적 원인: 낮은 일반적 신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 23-36.

박혜정, 전경숙 (2004). 폐선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가치 결정요인: 물질주의와 소비자 동조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 1243-1252.

허청라, 구재선, 서은국 (2014). 기본적 욕구 충족 이후의 행복: 사회적 욕구의 중요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 59-75.

Ahuvia, A. C., & Wong, N. Y. (2002). Personality and values based materialism: Their relationship and origin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2, 389-402.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Aknin, L. B., Norton, M. I., & Dunn, E. W. (2009). From wealth to well-being? Money matters, but less than people think.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 523-527.

Ang, C. S., Mansor, A. T., & Tan, K. A. (2014). Pangs of loneliness breed material lifestyle but don't power up life satisfaction of young people: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7, 353-365.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Belk, R. W. (1985). Materialism: Trait aspects of living in the material world.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65-280.

Bondevik, M., & Skogstad, A. (1998). The oldest old, ADL, social network, and loneliness.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0, 325-343.

Boomsma, D. I., Cacioppo, J. T., Muthén, B.,

- Asparouhov, T., & Clark, S. (2007). Longitudinal genetic analysis for loneliness in Dutch twins. *Twin Research & Human Genetics, 10*, 267-273.
- Boomsma, D. I., Cacioppo, J. T., Slagboom, P. E., & Posthuma, D. (2006). Genetic linkage and association analysis for loneliness in Dutch twin and sibling pairs points to a region on chromosome 12q23 - 24. *Behavior Genetics, 36*, 137-146.
- Boomsma, D. I., Willemsen, G., Dolan, C. V., Hawkey, L. C., & Cacioppo, J. T. (2005). Genetic and environmental contributions to loneliness in adults: The Netherlands twin register study. *Behavior Genetics, 35*, 745-752.
- Bredemeier, H. C., & Toby, J. (1960). *Social problems in America: Costs and casualties in an acquisitive society*. New York, NY: Wiley.
- Brickman, P., Coates, D., & Janoff-Bulman, R. (1978). Lottery winners and accident victims: Is happiness relative?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36*, 917-927.
- Buhrmester, M., Kwang, T., & Gosling, S. D. (2011). Amazon's Mechanical Turk: A new source of inexpensive, yet high-quality, data?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6*, 3-5.
- Burroughs, J. E., & Rindfleisch, A. (2002). Materialism and well-being: A conflicting values perspectiv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9*, 348-370.
- Cacioppo, J. T., Cacioppo, S., & Boomsma, D. I. (2014). Evolutionary mechanisms for loneliness. *Cognition & Emotion, 28*, 3-21.
- Cacioppo, J. T., Ernst, J. M., Burleson, M. H., McClintock, M. K., Malarkey, W. B., Hawkey, L. C., ... & Bernston, G. G. (2000). Lonely traits and concomitant physiological processes: the MacArthur social neuroscience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physiology, 35*, 143-154.
- Cacioppo, J. T., Fowler, J. H., & Christakis, N. A. (2009). Alone in the crowd: The structure and spread of loneliness in a large social network.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97*, 977-991.
- Cacioppo, J. T., Hawkey, L. C., Kalil, A., Hughes, M. E., Waite, L., & Thisted, R. A. (2008). Happiness and the invisible threads of social connection. In M. Eid & R. J. Larsen (Eds.),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pp. 195-219). The Guilford Press.
- Cacioppo, J. T., Hughes, M. E., Waite, L. J., Hawkey, L. C., & Thisted, R. A. (2006). Loneliness as a specific risk factor for depressive symptoms: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nalyses. *Psychology & Aging, 21*, 140-151.
- Cacioppo, J. T., & Patrick, W. (2008). *Loneliness: Human nature and the need for social connection*. New York, NY: Norton & Co.
- Cameron, J. A., Alvarez, J. M., Ruble, D. N., & Fuligni, A. J. (2001). Children's lay theories about ingroups and outgroups: Reconceptualizing research on prejudice.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Review, 5*, 118-128.
- Cheng, H., & Furnham, A. (2002). Personality, peer relations, and self-confidence as predictors of happiness and loneliness. *Journal of Adolescence, 25*, 327-339.
- Cohen, P., & Cohen, J. (1996). *Life values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Mahwah, NJ: Erlbaum.
- Delgado, M. R. (2007). Reward related responses in the human striatum.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104*, 70-88.
- Demir, A., & Tarhan, N. (2001).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in Turkish adolescen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35*, 113-123.
- DeWall, C. N., & Pond Jr, R. S. (2011). Loneliness and smoking: The costs of the desire to reconnect. *Self and Identity, 10*, 375-385.

- DeWall, C. N., & Richman, S. B. (2011). Social exclusion and the desire to reconnect. *Social &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5, 919-932.
- DeWall, C. N., Twenge, J. M., Gitter, S. A., & Baumeister, R. F. (2009). It's the thought that counts: The role of hostile cognition in shaping aggressive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96, 45-59.
- Diener, E., & Biswas-Diener, R. (2002). Will money increase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57, 119-169.
- Diener, E., Ng, W., Harter, J., & Arora, R. (2010). Wealth and happiness across the world: material prosperity predicts life evaluation, whereas psychosocial prosperity predicts positive feeling.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99, 52-61.
- Diener, E., & Oishi, S. (2000). Money and happiness: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In E. Diener & E.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p. 185-218). MIT Press, Cambridge, MA.
- Diener, E., Oishi, S., & Lucas, R. E. (2009).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S. J. Lopez & C. R. Snyder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187-194). Oxford University Press.
- Diener, E., Sandvik, E., Seidlitz, L., & Diener, M.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Relative or absolut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8, 195-223.
- Diener, E., & Seligman, M. E.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 81-84.
- Diener, E., Suh, E. M., Kim-Prieto, C., Biswas-Diener, R. & Tay, L. S. (2010). Unhappiness in South Korea: Why it is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2010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1-23.
- Distel, M. A., Rebollo-Mesa, I., Abdellaoui, A., Derom, C. A., Willemsen, G., Cacioppo, J. T., ... Boomsma, D. I. (2010). Familial resemblance for loneliness. *Behavior Genetics*, 40, 480-494.
- DiTommaso, E., Brannen-McNulty, C., Ross, L., & Burgess, M. (2003). Attachment styles, social skills and loneliness in young adults.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35, 303-312.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0, 1327-1343.
- Dunbar, R. I., & Shultz, S. (2007). Evolution in the social brain. *Science*, 317, 1344-1347.
- Dweck, C. S. (2006). *Mindset: The new psychology of success*. Random House.
- Eisenberger, N. I., & Lieberman, M. D. (2004). Why rejection hurts: a common neural alarm system for physical and social pai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8, 294-300.
- Ernst, J. M., & Cacioppo, J. T. (2000). Lonely heart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oneliness. *Applied & Preventive Psychology*, 8, 1-22.
- Furnham, A. (1988). *Lay theories: Everyday understanding of problems in the social sciences*. Pergamon Press.
- Furnham, A., & Argyle, M. (1998). *The psychology of money*. Psychology Press.
- Furnham, A., & Bower, P. (1992). A comparison of academic and lay theories of schizophrenia.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1, 201-210.
- Furnham, A., & Cheng, H. (2000). Lay theories of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227-246.
- Furnham, A., Wilson, E., & Telford, K. (2012). The meaning of money: The validation of a short money-types measure.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52, 707-711.
- Ger, G., & Belk, R. W. (1996).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materialism.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7, 55-77.

- Gerdtham, U. G., & Johannesson, M.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health, and socio-economic factors: Results based on Swedish microdata.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0, 553-557.
- Hawkley, L. C., Browne, M. W., & Cacioppo, J. T. (2005). How can I connect with thee? Let me count the ways. *Psychological Science*, 16, 798-804.
- Hawkley, L. C., Hughes, M. E., Waite, L. J., Masi, C. M., Thisted, R. A., & Cacioppo, J. T. (2008). From social structural factors to perceptions of relationship quality and loneliness: The Chicago health, aging, and social relations stud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 Social Sciences*, 63, S375-S384.
- Hawkley, L. C., Preacher, K. J., & Cacioppo, J. T. (2007). Multilevel modeling of social interactions and mood in lonely and socially connected individuals: The MacArthur social neuroscience studies. In A. D. Ong & M. van Dulmen (Eds.), *Oxford handbook of methods in positive psychology* (pp. 559-575).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Holden, C. J., Dennie, T., & Hicks, A. D. (2013). Assessing the reliability of the M5-120 on Amazon's mechanical Turk.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 1749-1754.
- Hong, Y. Y., Levy, S. R., & Chiu, C. Y. (2001). The contribution of the lay theories approach to the study of groups.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Review*, 5, 98-106.
- Hughes, M. E., Waite, L. J., Hawkley, L. C., & Cacioppo, J. T. (2004). A short scale for measuring loneliness in large surveys results from two population-based studies. *Research on Aging*, 26, 655-672.
- Inglehart, R., Foa, R., Peterson, C., & Welzel, C. (2008). Development, freedom, and rising happiness: A global perspective (1981-2007).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 264-285.
- Jones, D. C. (1992). Parental divorce, family conflict and friendship networks. *Journal of Social & Personal Relationships*, 9, 219-235.
- Jones, W. H., Hobbs, S. A., & Hockenbury, D. (1982). Loneliness and social skill deficit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2, 682-689.
- Karabati, S., & Cemalcilar, Z. (2010). Values, materialism, and well-being: A study with Turkish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1, 624-633.
- Kasser, T., & Ryan, R. M. (1993).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e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5, 410-422.
- Langner, T. S., & Michael, S. T. (1963). Life stress and mental health: II. The midtown Manhattan study.
- Lakin, J. L., Chartrand, T. L., & Arkin, R. M. (2008). I am too just like you: Nonconscious mimicry as an automatic behavioral response to social exclusion. *Psychological Science*, 19, 816-822.
- Lee, G. R., & Ishii-Kuntz, M. (1987). Social interaction, loneliness, and emotional well-being among the elderly. *Research on Aging*, 9, 459-482.
- Lelieveld, G. J., Moor, B. G., Crone, E. A., Karremans, J. C., & van Beest, I. (2013). A penny for your pain? The financial compensation of social pain after exclusion. *Social Psychological & Personality Science*, 4, 206-214.
- MacDonald, G., & Leary, M. R. (2005). Why does social exclusion hur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physical pain. *Psychological Bulletin*, 131, 202-223.
- Maner, J. K., DeWall, C. N., Baumeister, R. F., & Schaller, M. (2007). Does social exclusion

- motivate interpersonal reconnection? Resolving the "porcupine problem."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92, 42-55.
- Mayer, S. E. (1997). *What money can't buy: Family income and children's life chances*. Harvard University Press.
- McGuire, S., & Clifford, J. (2000). Genetic and environmental contributions to loneliness in children. *Psychological Science*, 11, 487-491.
- Molden, D. C., & Dweck, C. S. (2006). Finding "meaning" in psychology: A lay theories approach to self-regulation, social perception, and soci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61, 192-203.
- Mullins, L. C., & Dugan, E. (1990). The influence of depression, and family and friendship relations, on residents' loneliness in congregate housing. *The Gerontologist*, 30, 377-384.
- Murray, S. L., Holmes, J. G., MacDonald, G., & Ellsworth, P. C. (1998). Through the looking glass darkly? When self-doubts turn into relationship insecuritie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5, 1459-1480.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Oishi, S., Kesebir, S., & Diener, E. (2011). Income inequality and happiness. *Psychological Science*, 22, 1095-1100.
-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39, 472-480.
- Perlman, D., & Peplau, L. A. (1982). Theoretical approaches to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 123-134).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 Pieters, R. (2013). Bidirectional dynamics of materialism and loneliness: Not just a vicious cycl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0, 615-631.
- Rahn, W. M., & Transue, J. E. (1998). Social trust and value change: The declin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n youth, 1976-1995. *Political Psychology*, 19, 545-565.
- Richins, M. L., & Dawson, S.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 303-316.
- Richins, M. L., & Rudmin, F. W. (1994). Materialism and economic psycholog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5, 217-231.
- Roberts, J. A., & Clement, A. (2007). Materialism and satisfaction with over-all quality of life and eight life domai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2, 79-92.
- Rook, K. S. (1990). Stressful aspects of older adults' social relationship: Current theory and research. In M. A. P. Stephens, J. H. Crowther, S. E. Hobfoll, & D. L. Tennenbaum (Eds.), *Stress and coping in later-life families* (pp. 173-192). Washington DC: Hemisphere.
- Rotenberg, K. J., & Kmill, J. (1992). Perception of lonely and non-lonely persons as a funct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loneliness. *Journal of Social & Personal Relationships*, 9, 325-330.
- Routasalo, P. E., Savikko, N., Tilvis, R. S., Strandberg, T. E., & Pitkälä, K. H. (2006). Social contacts and their relationship to loneliness among aged people: A population-based study. *Gerontology*, 52, 181-187.
- Russell, D. W. (1996).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20-40.
- Ryan, L., & Dziurawiec, S. (2001). Materialism and its relationship to life satisfa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55, 185-197.
- Sescousse, G., Caldú, X., Segura, B., & Dreher, J. C. (2013). Processing of primary and secondary

- rewards: A quantitative meta-analysis and review of human functional neuroimaging studies.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37, 681-696.
- Smart Richman, L., & Leary, M. R. (2009). Reactions to discrimination, stigmatization, ostracism, and other forms of interpersonal rejection: A multimotive model. *Psychological Review*, 116, 365-383.
- Smith, J. R., Brooks-Gunn, J., & Jackson, A. P. (1995). Parental employment and children. *Indicators of Children's Well-Being: Child Health, Education, & Economic Security*, 2, 279-310.
- Tay, L., & Diener, E. (2011). Needs and subjective well-being around the world.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101, 354-365.
- Twenge, J. M., Baumeister, R. F., Tice, D. M., & Stucke, T. S. (2001). If you can't join them, beat them: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81, 1058-1069.
- VanderWeele, T. J., Hawkey, L. C., & Cacioppo, J. T. (2012). On the reciprocal association between loneli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76, 777-784.
- Veenhoven, R. (1995). 'The cross-national pattern of happiness: Test of predictions implied in three theories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4, 33-68.
- Veenhoven, R. (2012). Social development and happiness in nations. *ISD Working Paper Series*.
- Vohs, K. D., Mead, N. L., & Goode, M. R. (2006).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money. *Science*, 314, 1154-1156.
- Vohs, K. D., Mead, N. L., & Goode, M. R. (2008). Merely activating the concept of money changes personal and interpersonal behavior.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7, 208-212.
- Watson, J. J. (2003). The relationship of materialism to spending tendencies, saving, and deb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4, 723-739.
- Weiss, R. S. (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Wheaton, B. (1994). Sampling the stress universe. In W. Avison., & I. H. Gotlib (Eds.), *Stress and mental health* (pp. 77-114). Springer US.
- Wilkinson, R. G. (1996). *Unhealthy societies: The afflictions of inequality*. Routledge, London.
- Wilson, J. B., Ellwood, D. T., & Brooks-Gunn, J. (1995). Welfare-to-work through the eyes of children. In P. L. Chase-Lansdale & J. Brooks-Gunn (Eds.), *Escape from Poverty* (pp. 63-86).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Wittenberg, M. T., & Reis, H. T. (1986). Loneliness, social skills, and social perception.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12, 121-130.
- Wright, N. D., & Larsen, V. (1993). Materialism and life satisfaction: A meta-analysis. *Journal of Consume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and Complaining Behavior*, 6, 158-165.
- Zhou, X., & Gao, D. G. (2008). Social support and money as pain management mechanisms. *Psychological Inquiry*, 19, 127-144.
- Zhou, X., Vohs, K. D., & Baumeister, R. F. (2009). The symbolic power of money: Reminders of money alter social distress and physical pain. *Psychological Science*, 20, 700-706.
- 1 차원고집수 : 2015. 09. 11.
수정원고집수 : 2015. 11. 02.
최종게재결정 : 2015. 11. 05.

Lonely people choose money over relationships in pursuit of happiness

KaYoung Kim **Nangyeon Lim** **Eunkook M. Suh**
Yonsei University Kyung-il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Would a lonely person choose a true friend or a million dollars? Because people fulfill their unmet social needs by forging social connections, lonely people may be expected to favor social relationships over money. However, the present research reveals that lonely people prioritize money in their pursuit of happiness, and prefer \$100,000 to a true friend (Study 1, 2). Moreover, in contrast to their expectations, lonely people did not derive more happiness from money than they did from friends in real life (Study 3). Overall, the current research shows that lonely people believe that money can boost their happiness more so than social connections, a mistaken belief stemming from excessive materialistic values.

Key words: loneliness, materialism, happiness, lay belief